

근거이론을 적용한 군 조직의 보안수준 변화요인 연구

박재곤*

〈요 약〉

군 조직의 보안수준 변화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현역 간부들이 군의 보안수준 향상을 바라며 국방일보에 투고한 기고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라는 질적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 후 조직구성원들이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내부자의 보안위협’, 맥락적 조건은 ‘군 조직의 특수성’, 중심 현상은 ‘군인으로서 가치관의 충돌’, 중재적 조건은 ‘보안의식’, 전략은 ‘보안위협에 대응’, 결과는 ‘보안수준 변화’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첫째, 군 조직의 구성원은 안보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을 강하게 느끼며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보안수준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둘째, 동료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가 약하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보안수준을 퇴보시키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조직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확고한 안보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주제어 : 근거이론, 보안수준, 보안의식, 내부자 보안위협, 조직구성원의 대응

* 본 연구는 2016년도 수원대학교 박사논문에서 수집된 자료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수원대학교 행정학 박사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IV. 연구 결과 V. 결 론

I. 서 론

2015년 8월 강원도 전방지역에서 북한이 이군을 대상으로 한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¹⁾을 저지른 이후 남북 간의 대치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에서 준전시사태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최후통첩을 하기에 이른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부 초급간부들이 몰래 반입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군의 전술체계망에 탑재된 이군의 작전상황을 촬영 후 SNS에 게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해군의 구조함인 통영함이 현역과 예비역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사업과 관계된 군 정보를 주고받으며 비리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군의 보안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방위력 사업 분야의 발달로 군의 보안문제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군사보안을 학문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역들이 국방일보를

1) 2015년 8월 5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면서 한국군 장병 2명이 부상을 당한 것과 2015년 8월 20일 강원도 연천 지역에서 한국군 화성기를 겨냥하여 포 사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통해 군의 보안기강 확립을 바라며 투고한 기고문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여 군 조직구성원들이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군사보안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군의 맥락과 밀접한 개념과 변수들을 도출하여 어떠한 요인으로 군내 보안위협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군사보안의 개념

군사보안에 대한 연구는 현역 장병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무지침서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군사보안 분야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의 없고 개념 정립조차 모호한 실정이다(박동희, 2012; 김성우, 백동환, 2014). 군 관련기관과 여기에 속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군사보안의 개념을 살펴보면 군의 보안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²⁾에서는 군사보안을 ‘군 전투력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인원, 문서, 통신, 전자자재 등을 간첩이나 기타 불순분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반 대책’으로 정의(기무사 홈페이지, 2017)하고 있으며, 합참에서는 ‘적의 정보수집 체계에 의해 관측될 수 있는 우군의 군사작전 및 제반 활동에 관한 중요정보와 취약점을 식별 및 보호하려는 조직적인 작전활동’으로 나타내면서 미군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작전보안 개념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용석, 2013). 한편, 박동희(2013)는 ‘국가 및 군의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하고, 김성우·백동환(2014)은 ‘국가안전보장 제반요소를 간첩 및 불순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반 대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 관련기관과 학자들의 군사보안에 대한 정의가 다소 상이한데, 군 관련기관의 경우 군 조직의 자산과 인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군사보안을 군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인 반면, 학자들은 군사보안을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군사보안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하는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

2)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제3조 직무 참조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군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무사의 군사보안 개념을 주로 적용하겠다. 각 연구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군사보안 개념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군사보안의 개념 비교

항목	세부내용
합참(2013)	군사적 가치를 지닌 제반요소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책
기무사(2017)	아군의 중요정보를 적의 정보수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
박동희(2013)	국가 및 군의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김성우, 백동환(2014)	국가안전보장 제반요소를 간첩·불순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책

※ 출처 : 이용석(2013), 박동희(2013), 김성우 · 백동환(2014), 기무사(2017)의 논의를 재구성

2. 내부자 보안위협

군 조직의 내부자 보안위협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해킹에 의한 침투 외에 외부자에 의한 직접적인 접근 자체가 제한되며 국군의 주적³⁾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당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기밀 수집의 주요한 전략을 현역 장병들을 포섭하는 것이라는 점이다(CNN, 2015)⁴⁾. 또한, 적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내부자는 군의 주요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의한 악의적인 군사기밀 수집행위는 군에 큰 위협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보안위협은 크게 발생 원천과 주체, 그리고 의도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Loch & Warkentin, 1992; 한국사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6; Jhonsotn & Warkentin, 2010;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1; Ahme & Sharif & Kabir & Maimani, 2012). 자세히 살펴보면 발생 원천에 따라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며, 발생 주체에 따라 인간과 기술로, 보안위협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의도적인 것과 비의

3)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국방백서에 최초 언급된 이후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용/미사용을 반복하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한 표현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4) 1995년 부여에서 검거된 남파간첩 김동식과 CNN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조선일보, 2015.5.22.)

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보안위협을 종류를 구분하면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원천	
		내부에서(악의/실수)	외부에서(악의)
주체	인간	자료 절취(의도적) 자료 분실(비의도적)	내부자를 통해 목표달성 (의도적)
	기술	내부자의 전산망 공격(의도적) 바이러스 감염(비의도적)	해킹에 의한 내부망 침투 (의도적)

※ 출처 : 각 연구자들의 논의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보안위협 종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내부자는 ‘내부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진 인가된 사람’을 말하며(국방과학연구소, 2011),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을 정의하면 ‘내부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현직 직원⁵⁾의 악의 또는 실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 내부의 정보자산 위협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군사보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술적/제도적 차원의 접근이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에 대한 모호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언론의 정보공개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자료의 공개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군 조직 내부에서 왜? 보안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심도 깊게 다루기에 제한이 있

5) 내부자의 범주로 전직직원을 포함하기도 하나(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본 연구에서는 현역 장병들의 기고문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직 직원을 내부자의 범주로 한정함

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덕, 심영철(1997), 김광식(2001), 김광식(2002), 장월수, 최중영, 임종인(2012), 박동희(2012), 장월수(2012), 권오훈, 이명훈, 이재우, 임채호(2013), 백재종, 문병무(2014), 여성철, 문종섭(2014), 이수인(2015), 최준, 강성문, 최인수(2015)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실증분석 위주의 양적 연구이다. 학계에서 검증된 이론을 군 조직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장병 개개인의 보안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검증하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안의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군사보안 분야가 학문적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군의 보안문제에 대한 생생한 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홍건(2006), 한규하, 김현정, 정도범, 이충정(2009), 박준형(2010), 서강흠(2011) 등의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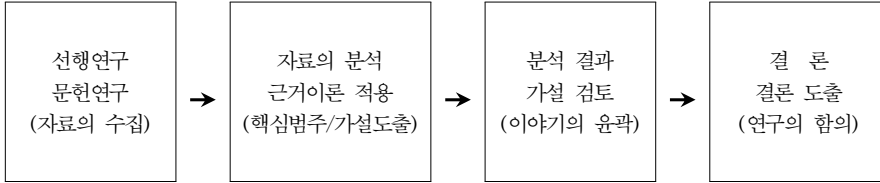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이라는 구조적/환경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의 보안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군사보안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근거이론(The Grounded Theory)을 적용하기로 한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가 1967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을 심층 관찰하면서 개발한 연구기법⁶⁾으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개념과 가설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Glaser & Strauss, 1967)에서 최근 행정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외래이론의 무분별한 유입이 불러일으킨 국내 환경에 부합된 토속적인 연구결과의 부재와 양적분석 위주의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준현, 2010; 권향원, 최도림,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데이터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 후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6) 세부 내용은 Glaser & Strauss의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of qualitative research(1967)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2] 연구의 절차

2. 자료 수집

근거이론에서는 범주를 명확화(포화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론적 표집 전략을 취한다(Charmaz, 2006). 따라서,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대응이라는 주제에 맞게 현역 장병들이 군의 보안기강 확립을 바라며 군의 대표적 일간지인 국방일보에 투고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국방일보 홈페이지(kookbang.dema.mil.kr)에 ‘군사보안’, ‘보안사고’, ‘보안기강’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주로 2000년대 이후 게시된 기고문 60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기고문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방일보 기고문

기고일	내용	기고일	내용
'06. 7.31	우리군의 보안태세, 무엇이 문제인가?	'07. 6.18	리더의 씀-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01. 7.29	군의 사기와 전투력	'07. 8. 7	나의 보안점수는 몇 점일까
'02. 5.23	우리군의 보안현주소 및 발전방안1	'07. 8.24	보안은 전투력이다
'02. 6. 8	보안 감사의 의미와 보람	'08. 2.14	군사보안, 실천이 중요
'02. 7.31	우리군의 보안현주소 및 발전방안2	'08. 2.25	개인 보안의식을 높이자
'02. 8.22	보안은 군인의 기본	'08. 3.17	한술밥 문화와 군인정신
'03. 2.22	보안! 이것부터 지킵시다	'08. 4.11	보안은 의식개혁으로부터
'03. 4.11	이라크戰을 통해 본 '군과 언론'	'08. 4.15	보안문화 혁신하자
'03. 7.31	보안! 이것부터 지킵시다	'08. 5.28	보안의식은 전승의 관건
'03. 8. 4	원칙규정 준수가 사고예방 지름길	'08. 6.27	군인과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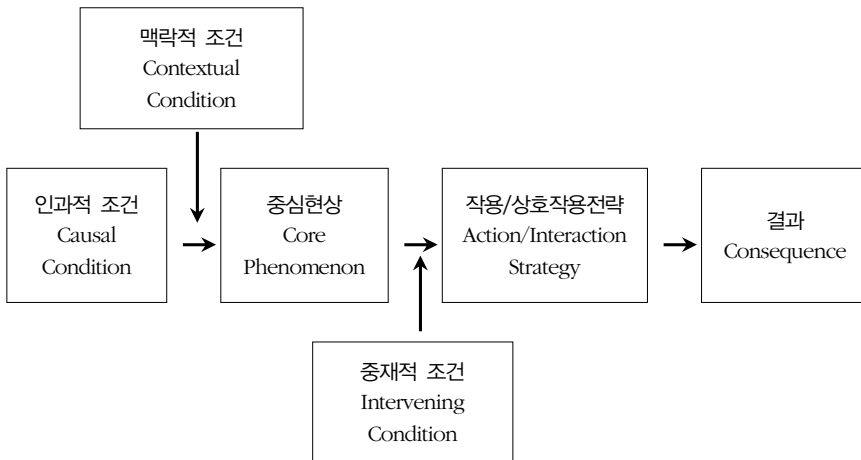
'03. 8.23 戰史를 통해 본 保安 중요성	'08.12.12 보안 위규는 이적행위
'04. 1.31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신보안	'08.12.29 명품 리더가 명품 군대를 만든다
'04.10.19 보안! 이것부터 지킵시다	'09. 1.20 신념에 찬 강한 부하를 육성하자
'05. 3.10 의식개혁으로 완벽 보안태세 확립	'09. 2.18 리더의 窓-항상과 평범의 리더십
'05. 3.31 지휘관 중심의 보안태세 확립	'09. 2.19 1%의 관심이 보안업무 성패 좌우
'05. 5. 4 보안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09. 3.26 정신보안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다
'05. 5.17 우리에게 절실한 保安관리	'09.12.30 교육생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제언
'05. 9.16 어리석은 자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	'11. 2.10 신세대 장병은 나약한가?
'05.11 .1 단일한 보안의식이 문제	'11. 6. 7 보안 친화적 습관화를 갖자
'06. 1.26 GOP대대장이 생각하는 보안의식	'12. 1.26 작전보안태세 확립 새해에도 계속된다
'06. 1.26 군대문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12. 7. 2 완벽한 대비태세, 정신보안이 먼저다
'06. 3.27 군사보안=축구 최종수비수	'12.12.11 가장 행복한 순간
'06. 5.16 인터넷시대의 군사보안대책	'13. 1. 5 정신보안 알파와 오메가
'06. 7.24 부적절한 Lip-Service	'14. 2.11 보안위규자는 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
'06. 9. 4 가을에 보안정신을 살찌우자	'14. 7. 3 당신의 보안! 안녕하십니까?
'06. 9.25 내부의 적은 누구인가?	'14.11.30 군사보안! 그 중요성을 되새기며
'06.12. 1 보안은 '관심'이다	'15. 3.30 보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07. 2. 6 보안의식 대전환이 절실하다	'15.12. 4 이제는 군인의 명예다
'07. 5. 1 보안은 항상 내 주머니에	'15.12.10 야전 간부의 의리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 연구의 체계적 절차를 제시하여 대중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Strauss & Corbin(1990, 1998)의 절차를 따랐다. Strauss & Cobin은 근거이론의 절차로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자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지 않는 포화기 단계가 도달할 때까지 3단계의 코딩절차를 반복하였다.

개방코딩은 이론구축의 첫 단계로서 개념의 발견과 개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주는 범주화를 거쳐 다시 도출된 범주를 하나의 상위범주로서 통합한다. 코딩기법은 전사된 자료에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면서 의미를 도출하는 ‘줄코딩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에 내재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Charmaz, 2006). 이렇게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은 축코딩 단계를 거치면서 속성과 차원을 부여하면서 구체화된다.

축코딩은 Glaser의 저작에는 없는 Strauss 버전의 핵심이다.(김인숙, 2011). 축코딩의 목적은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속성과 차원을 식별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연결 짓기 위해 Strauss & Corbin(1990)은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결과를 가져왔나?’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조직화된 도식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①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②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③ 중심현상(Core Phenomenon), ④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⑤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 ⑥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다. 축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들 간의 관계는 명확화된다.



[그림 3] Strauss &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

7) 포화(Saturation)란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근거이론에서는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다양화하고 이론을 형성하는 개념 사이의 윤곽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코딩은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로서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시키면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의 단계는 핵심범주의 선택, 가설 도출, 이야기의 윤곽 작성 순이다.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 현상으로써 연구문제의 본질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결과를 가져왔나?’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설 도출은 근거이론의 최종 목적으로 다음 연구를 위한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야기의 윤곽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개념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으로 핵심범주를 명확하게 해주며 도출된 가설 설명한다.

IV. 연구 결과

1. 범주화 및 범주간의 연결

1) 인과적 조건: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

〈표 3〉 인과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를 위해 보안규정을 어김 • 의도하지 않게 규정을 위반함 • 보안규정을 소홀히 어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규정을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함 ↓ •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을 과시 목적으로 이용 • 군을 위협으로 몰아세움 • 개인적인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익을 추구 			

인과적 조건은 연구현상의 발생이나 전개를 초래하는 사건 또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내부자의 보안위협’이 ‘군인의 가치관과 충돌’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모든 범주의 원인은 내부자의 보안규정 위반 등 보안위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위에서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대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지, 동료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하게 된다. 즉, 보안위협은 군인들의 가치관과 충돌된다는 중심현상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인과적 조건인 ‘내부자에 의한 보안위협’에 대한 속성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큼과 작음으로 구분되었다.

비밀오인 파기 등 고질적인 보안사고 폐습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비밀 관리 부실에 의한 분실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2003.2.>

업무를 이유로 다량의 비밀을 음성보관하거나 전역 후 취업 때 참고할 목적으로 비밀원본과 예고문이 도래된 비밀을 파기하지 않고... <2002.5.>

2) 중심현상: 군인으로서 가치관 충돌

〈표 4〉 중심현상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함 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 알권리를 이유로 군사기밀이 유출됨 	국가안보를 우려	군인으로서 가치관 충돌	정도	큼 ↓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의 처벌을 걱정함 일하다보면 그럴 수 있음 지휘관이 부하의 처벌을 망설임 	조직과 동료들 걱정함			

중심현상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것이며, 일련의 작용/상호작용들 혹은 이들의 상호연관이 다루어지고 처리될 때 일어나는 중심적 아이디어나 사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의 중심에서 모든 범주를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하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는 범주는 ‘군인으로서 가치관의 충돌’이었다. ‘내부자의 보안위협’이라는 원인적 조건에 대해 장병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가치관의 충돌을 느끼게 된다. 즉, 군인으로서 국가안보라는 큰 가치와 부대 내부의 안정, 전우애 등의 좁은 범위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

현상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크와 작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침해 행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군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과업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2008.2.>

한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군내에서도 수많은 사건사고 소식을 접해왔지만 늘상 그렇듯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전도유명한 간부들이 보안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이다. <2014.7.>

3) 맥락적 조건: 군 조직의 특수성

〈표 5〉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과 항시 대치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존재함 	집단주의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존재 전승을 목표로 조직이 움직임 	위계적 질서	군 조직의 특수성	정도	크 ↓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문화가 경직됨 조직 중심의 문화 조성 	폐쇄적인 문화			

맥락적 조건은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 문제 상황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이다(조중현, 2007). 중심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맥락적 조건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한국군만의 특수한 환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대응은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환경/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 범주에서는 ‘집단주의 의식’, ‘위계적 질서’, ‘폐쇄적 문화’ 세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인 ‘군 조직의 특수성’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크와 작음으로 구분되었다.

우리의 군대문화는 전통적 유교사상, 일본군의 권위주의적 문화, 미국의 실용주의적 문화가 혼재되어 왔다. <2006.2.>

조선군의 한술밥 문화는 그대로 군대에 전해져... 전우간에 단결심을 확고하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고유한 군사문화로 자리잡았다. <2008.3.>

4) 중재적 조건: 보안의식

〈표 6〉 보안의식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을 감수함 • 원리원칙을 지켜야 함 • 보안의식이 저조함 • 위협성을 인지하지 못함 • 장병들의 보안의식 쇠신이 필요 	보안기강 확립에 노력 군의 보안수준을 우려	보안의식	정도	투철 ↓ 해이

중재적 조건은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며, 중심 현상의 작용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1998). 다수의 장병들은 군의 해이한 보안기강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범주는 ‘보안의식’으로 나타났다. 보안의식은 군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보안위협에 대응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재적 조건인 보안의식의 속성은 ‘정도’로 투철과 해이로 구분되었다.

보안은 평소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군생활 동안 보안이 생활화되지 않은 사람은 업무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포장이 잘 된 상품이라도 그 속이 썩었다면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2006.2.>

보안의식이 미흡한 이유는 보안보다 업무가 우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보안규정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8.3.>

5) 작용/상호작용전략: 보안위협에 대응

〈표 7〉 작용/상호작용전략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 필요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강경하게 대응	보안위협에 대응	방향	적극적 ↕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위반자 처벌에 관대함 • 보안위반을 인지하고도 묵인함 	미온적으로 대응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증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 또는 전략적 반응으로 ‘누가,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함이다(Charmaz, 2006). 작용/상호작용의 범주는 ‘보안위협에 대응’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대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보안위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직과 동료들을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치되었다. 범주의 속성은 ‘방향’에 따라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구분하였다.

보안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즉, 보안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두려워 생각과 습관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2005.3.>

문제는 보안위반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있다. 통상 보안위반으로 적발 시 봐주거나 보안위반자에 대한 징계결과에 대해 지휘관이 감경해 주는 등 소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2008.3.>

6) 결과: 보안수준 변화

〈표 8〉 결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속성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이 끊임없이 노력함 • 부하들의 의식이 개선됨 	보안위협 감소	보안수준 변화	방향	발전 ↕ 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정주의가 팽배함 •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음 	보안위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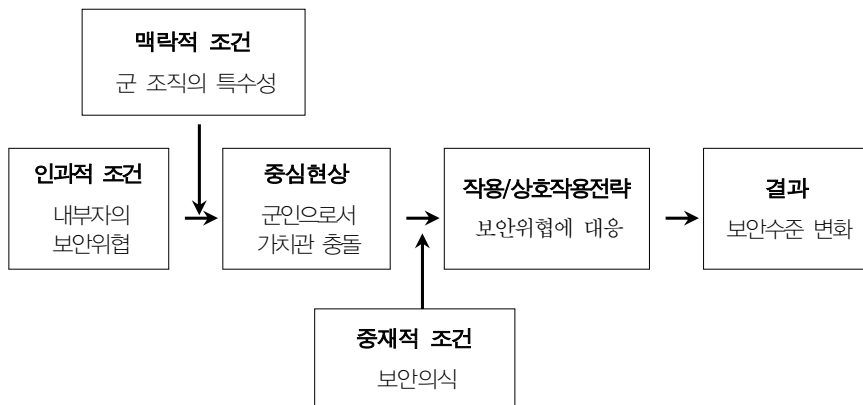
결과는 행위와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나타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이다(Charmaz, 2006).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대해 군인들은 가치관에 따라 강경하게 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휘관의 보안기강 확립 노력은 장병들의 보안의식을 개선시켜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보안위반에 관대한 조직은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아 보안수준을 저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에 관한 속성은 ‘방향’이며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휘관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진단한 우리부대의 보안의식은 기대보다 아쉬운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보안위규자가 현격히 감소하였다. <2003.2.>

보안위반자의 미온적 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업무는 신상필벌 등 경각심 촉구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계도를 통한 자발적인 업무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용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2002.7.>

7) 패러다임 모형 구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도출된 6개의 범주의 관계를 정립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대응 패러다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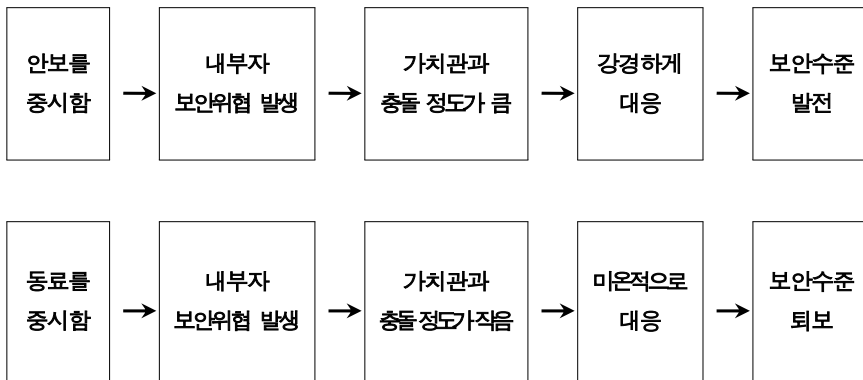
2. 선택코딩

1) 핵심범주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시키면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선택코딩의 첫 단계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 현상인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로 분석되었다. 군 조직의 보안수준 변화요인은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군인들의 차별적 대응과 그 결과로 함축이 가능하다.

2) 가설의 도출

근거이론의 목적은 가설의 발견에 있으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결과를 가져왔나?’라는 질문에 대한 관계진술의 형태로 나타난다(문연철, 2013).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대응’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페러다임 모형과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아래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2가지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림 5]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대응 유형

3. 가설검토 : 이야기의 윤곽

이야기의 윤곽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과정이다(강민지, 2011). 국방일보 기고문을 분석하여 연

구의 핵심범주인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에 대한 이야기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방일보 기고문을 작성한 장병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중재적 조건). 하지만, 일부 군인들에 의해 업무를 위해 보안을 소홀히 여기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악용하는 등의 일련의 보안기강 해이가 군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인과적 조건). 이를 두고 군인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놓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갈등하게 된다(중심현상). 이러한 갈등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면서 상명하복과 전우를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환경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맥락적 조건), 군 내부에서 보안위반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료의 처벌을 안타까워하면서 개인의 장래와 조직의 화합/단결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미온적 대응 입장이 대치되었다(작용/상호작용전략). 이에 따른 결과는 조직 전반의 보안수준을 변화시켰는데, 지휘관을 중심으로 보안위협에 대한 단호히 대처하는 부대는 장병들의 보안의식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조직 전반의 보안수준이 높아진 반면, 보안을 경시하면서 내부자의 보안위협에 관대한 조직의 경우 장병들의 보안기강은 해이해지면서 조직 전반의 보안수준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결과).

결국, 조직의 보안수준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치관에 따른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대응 방향이었으며,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기조가 강할수록 보안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동료와 조직 중심의 가치관은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기조를 약화시켜 조직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에 따라, 군 조직의 확고한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인들의 안보관을 높이기 위한 국방부 등 상부 차원의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보안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군 조직에서 보안사고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내부자의 보안위협’, 맥락적 조

건은 ‘군 조직의 특수성’, 중심현상은 ‘군인으로서 가치관의 충돌’, 중재적 조건은 ‘보안 의식’, 전략은 ‘보안위협에 대응’, 결과는 ‘보안수준 변화’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첫째, 군 조직의 구성원은 안보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을 강하게 느끼며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조직 전반의 보안수준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둘째, 동료와 조직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가 약하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보안수준을 퇴보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보안 제도 발전과 민간 부분의 연구결과를 군에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근거이론이라는 질적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군의 맥락에 밀접한 변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역 장병들이 직접 투고한 기고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록을 연구에서 다룰 수 있었다. 둘째, 군사보안을 포함한 보안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국가안보와 동료애는 군인에게 모두 중요한 가치적 요소이다. 하지만, 동료애가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처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향후 군과 민간의 보안문제 연구에 대한 준거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문제로 국방일보에 투고된 기고문에 한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질적연구에 한정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집단 간 비교연구, 동일한 자료를 복수 연구자에 의한 분석, 질적연구의 양적검증 등의 연구기법의 삼각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지 (2011). 근거이론에 의한 아동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연구. 박사학위논문
- 김광식 (2001). 열린 국방차원의 대인론 정보공개와 군사보안의 효율적 조화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 김광식 (2002). 군 보안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국방정책연구 제56권, 173-204
- 김정덕·심명철 (1997). 미 국방부의 정보관리 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목표보안 아키텍처, 정보처리학회지 제4권 제2호, 12-23
- 김준현 (2010). 행정사례연구 접근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의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321-341
- 김성우·백동환 (2014). 군사보안실무론. 인천: 진영사
- 김홍건 (2006). 정보보안의식 및 관리체계를 통해 본 군 정보보안 실태에 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http://www.dsc.mil.kr>
- 국방일보 홈페이지 <http://kookbang.dema.mil.kr>
- 권오훈·이명훈·이재우·임재호 (2013). 국방망의 지속적인 실시간 보안관리체계, 정보보호학회 제23권 제6호, 54-66
- 권향원·최도립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적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제45권 제1호, 275-302
- 문연철·김용훈 (2013). 근거이론을 적용한 예비역단체의 국방정책 참여 특성, 행정논총 제51권 제2호, 257-282
- 박동희 (2012). 군 보안규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석사학위논문
- 박준형 (2010). 억제요인 특성이 정보보안 효과에 미치는 영향, 3사교 논문집 제71권, 1-30
- 백재종·문병무 (2013). 국방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 생태계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정보보호학회 제24권 제6호, 1263-1269
- 서강흠 (2012). 軍 간부들의 개인적 특성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이용석 (2013). 작전보안 개념과 국방적용 방안, KIDA 주간국방논단
- 여성철·문종섭 (2014). 국방정보체계의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 제24권 제6호, 1285-1292

- 조선일보(2015., 5, 22). “北 간첩 영화 속 얘기 아냐” …前 남파공작원 美 CNN 인터뷰, <http://news.zum.com/articles/22187146>, 검색일 2017. 10. 20.
- 장월수·최중영·임종인 (2012). 군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 제22권 제3호, 575-584
- 장월수 (2012). 군사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 조중현 (2007).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이론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 최준·강성문·최인수 (2015). 美軍 암호장비 현황 및 상호운용성 전략, 정보보호학회 제25권 제2호, 58-63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6). 예방적 차원의 전자문서 유출 방지 대책, 2006 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1). 내부자 보안관리 기본방안, 2011 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
- 한규하·김현정·정도범·이중정 (2009). 군 조직지식 공유과정에 보안의식이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제35권 제3호, 139-156
- Ahmed, M., Sharif, L., Kabir, M. (2012). Human Errors in Informatio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Journal of Advanced Trend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1(2), pp. 82-87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Washington: SAGE
- Glaser, B., Strauss, A. (2006).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dline
- Jhonston. A. C., Warkentin, M. (2010). *Fear Appeals and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s: An Empirical Study*, Minnesota: MIS Quartely
- Loch. K., Carr, H., Warkentin, M. (1992). *Threats to Information systems: Today's Reality, Yesterday's Understanding*, Minnesota: MIS Quartely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Developing for Grounded Theory 1st*, LA: Sage
- Strauss, A.,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Developing for Grounded Theory 2nd*, LA: Sage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Security Level of Military Organizations Applying Grounded Theory

Park, Jae-Gon

This study which was star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hange the security level of military organizations,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articles written by the active officers in the Defense Daily Journal hoping to improve the military security level b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lled Grounded Theory, and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how organizational members respond to insider security threa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usal condition is ‘the security threat of the insider’, the contextual condition is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nflict of values as a soldier’, the arbitrary condition is ‘the security consciousness’, Strategy is ‘the responds to security threats’, and the result was ‘security level change’. The core categories can be presented as ‘the degree of conflict of values on insider security threats’ and two hypotheses have been derived.

First, the member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strongly felt the conflict of values about security threat as the tendency to emphasize security was strong, and they helped to develop the security level of organization by responding strongly. Second,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focus on colleagues, respond weakly to security threats. And it undermines the security level of the organization.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security level of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lid security consciousness and to make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support it.

Keywords: Grounds theory, Level of security, Security consciousness,
Insider security threat, Response of organization member